

우리학교의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인 김진상 총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대학주보, 양캠프 대학의 소리방송국 VOU, 영어신문사)는 김 총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내 과제를 들어봤다.



'함께 크게 어울린다'는 대동(大同)의 정신에서 출발한 대동제가 연예인 섭외 경쟁과 역대 예산 지출의 장으로 변한 현재, 대학 축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대학주보

다전공 의무화됐으나 학생들은 '혼란' 실무 담당할 '미래교육처' 이번 달에야 출범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올해 신·편입생부터 다전공·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본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보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과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수강 과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전공 이수와 관련한 안내

는 학과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안내는 일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다전공 이수 및 포기 신청 안내'와 같은 게시글이 전부다. 현재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융합학과 ▲전자공학과 ▲생체의공학과는 다전공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사회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학과는 학년 평균 평점 3.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가 일부 학과 공지사항에만 게시돼 해당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하현(경영회계계열 2026) 씨는 "졸업을 위한 필수 행정 제도에 학교나 학과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혹여나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졸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하린(사회학 2026) 씨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전공 이수 관련 안내는 의무화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섞여 있어 혼란스

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련 정보를 모아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승규(컴퓨터공학) 부학장은 "소용대도 다른 학과와 비슷하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글을 올려놨다"며 "다전공 의무 이수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미비했던 이유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미래교육처의 출범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지난해 다전공생에 대한 성적 평가 기준 차등

적용이나 쿼터제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실행 및 관리할 부서가 부재해 구체화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 이수 관련 관리를 맡게 될 신규 부처인 미래교육처가 올해 3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개편이 늦어지며 세부 사항 결정 또한 지연된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본부는 단과대별 상이한 신청·승인 기준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총장 간담회에서 총장실 김동건 정책실장은 "다전공 진입 장벽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달 신설 예정인 미래교육처의 교육혁신기획팀과 교육성과관리팀이 총괄해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상 총장은 "현재의 필수 과목과 선수 과목 요건이 지금처럼 엄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다전공을 더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응통과 전 학생회장, 학생회비 700만 원 사적 운용...변제 '진행 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응용영어통번역학과(응통과) 제57대 학생회장(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전 학생회장이 재임 기간(2025년) 중 학생회비 7,031,2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은 변제됐으나, 4,532,200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문과대 감사위원회가 황 씨의 문과대 학생회장 재임 당시(2026년) 학생회비 사적 운용 의혹을 조사하던 시기에 문과대 건과는 별개로 드러났다. 당시 문과대 감사위원이었던 한수애(응용영어통번역학 2025) 현 응통과 학생회장은 황 씨가 전년도 응통과 학생회장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응통과 회장단은 지난달 4일부터 자체 검토를 시작했으며, 총 7,031,200원 규모의 사업 목적 외

지출을 확인했다. 회장단은 이를 택시비, 식비, 여가비 등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의한 지출로 추정했다. 이후 6일, 황 전 회장은 교수 2인과 현 회장단 2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제 절차 진행을 위해 7일 응통과 특별기구감사위원회(응감위)를 인준하고, 10일부터 정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제57대 학생회 재임 기간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학생회비 집행 전반과 사적 운용 내역이었다. 감사위는 총 143건의 사적 운용 의심 내역을 확인했다. 의심 내역에는 편의점, 코인노래방, 병원 및 약국 등 총 135건의 생활형 지출과 8건의 학생회장 개인 계좌로의 목적이 불분명한 송금이 있었다. 정기총회 예결산안 허위 기재도 있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정기총회에서 문서를 임의로 조작해 총 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2,998,563

3. 학생회비 사용 금액 변제 요청	
감사 결과 제57대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사적 운용한 것으로 시인한 금액에서 재임 기간 중 변제 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572,200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했다.	
- 2026. 05. 21. 1차 변제 요청	24일 자정까지 제57대 학생회장에게 6,572,200원에 대한 일괄적인 변제를 요청했으나, 24일 21시경 988,900원만을 변제한 이후 일일 이체 한도를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2026. 05. 26. 2차 변제 요청	26일 자정까지 1차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583,300원에 대한 변제를 다시 한 번 요청했으나 26일 14시경 243,100원만을 변제했다.
- 2026. 05. 28. 3차 변제 요청	29일 자정까지 2차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340,200원에 대한 변제를 마지막으로 요구했으나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7,031,200원의 사적 지출 내역 중 현재까지 4,532,200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응감위 감사 결과 보고서 일부 캡처) 원 더 많게 허위 기재했다. 또한 학생회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정산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변제를 하지 않는 '이중 정산' 행위도 다수 확인했다. 다만 부학생회장 재정사무국장, 재정사무국원 2인은 학생회장의 사적 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회비 관리가 독단적이었던 공동 책임자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응감위는 21일 7,031,200원에서 재임 기간 변제한 1,276,000원을 제외한 5,755,200원에 대한 일괄적인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은 988,900원만을 변제한

이후 일일 이체 한도를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26일 2차 변제 요청에는 243,100원만을 변제했다. 28일 3차 변제 요청에 대해선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변제를 멈췄다. 응통과는 온라인 플랫폼 '노션'에 실시간 학생회비 지출 내역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학우들에게 투명한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응감위는 3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적 운용 내역만 제외된 뒤 업로드함으로써 오히려 학우들을 기만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응감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피감사인 5인에게 사과문 및 입장문 작성을 요구한 상태다. 피감사인 5인은 제57대 응통과 학생회장단 2인, 재정사무국장, 재정사무국원 2인이다. 감사를 마친 한 회장은 "감사위는 징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단계"라며 "할 수 있는 최대의 요구였던 사과문과 입장문 요구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2 인터뷰- 취임 3년 맞은 김진상 총장

“남은 임기, 학생 중심 교육 혁신으로 증명하겠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우리학교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인 김진상 총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대학주보, 양캠프 대학의소리방송국 VOU, 영어신문사)는 김 총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내 과제를 물었다.

취임 3년 차 소회가 궁금하다.

임기 4년 중 3년째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역할은 학술이 핵심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연구와 교육, 그걸 지원하는 공간과 재정이 있다. 그것을 각각 독립된 업무 영역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그마한 성과도 있었다. 세계대학평가 상승, 우수 교원 확충, 대형 국가연구사업수주와 교육지원사업 최고등급 선정 등이다. 다만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과의 격차는 분명히 있다. 재정 격차, 교육과 연구 수월성에 기반한 위상 격차가 있다. 그걸 인지하고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 혁신, 연구 혁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탑 티어 대학으로의 도약이다.

대학교육에 AI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 1주년 때 ‘AI 교육 혁신’을 거론한 바 있지만 아직 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혁신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다.

AI 역시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 이전에 기본 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I 시대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숙고하고 있다. AI 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는 AI를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내재화하는 ‘AI-Native University’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혁신 방향은 크게 ‘교육과정 혁신’, ‘학생 경험 혁신’, ‘인프라와 플랫폼 혁신’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학 전체가 AI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학생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수자 중심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에 AI 중심 교육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바탕으로 학생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산하 언론4사는 취임 3년차를 맞은 김진상 총장을 만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융합 교육체제 고도화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 다전공이 의무화됐다.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신입생들의 불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융합적인 역량과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맞춰 학생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제도다. 특히 2026 학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같은 형태의 다전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영될 미래교육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교육과정 운영, 이수체계 관리, 학생 안내와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우려도 있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분반 확대, 수강인원 조정, 온라인 강의 병행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다. 또한 공간관리시스템을 통해 강의 공간 운영 역시 효율화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15년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설립 취지 퇴색에 대해 구성원들의 걱정이 있다. 최근엔 행·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총장

께서는 후마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공학자로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면서도 밑바탕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자연계 학생은 사람과 세상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고, 반대로 인문사회계는 과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후마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중요한 일이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후마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과거의 방식만론 학생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후마니타스의 진화’가 필요하다. 후마는 앞으로도 사유 중심의 교양교육이라는 본질을 더 분명히 해야 하며 본질은 시대 변화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학습 방식과 평가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후마가 여러 전공을 연결하는 단일 학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난 5월 공대 분관 건립 발대식 이후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높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양캠프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총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와 효율화시킬 것

인지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만큼 그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획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절차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현재 본격적 추진 단계로 공사 입찰이 진행 중이다. 7월 중 착공식을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학관 분관은 강의실 확충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교육·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항상 공간이 부족했는데, 공간 부족이 이슈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학교가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 공간관리시스템, 복합형 학습 공간과 학교 근처 외부 공간 임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 확충은 우리학교가 처한 중요 현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3년간의 변화는 재정 관리 수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구조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학교 재정은 교비 약 5,400억 원과 대외 연구비 약 2,000억 원을 포함해 약 7,4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요 경쟁 대학들의 재정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기간 내에 1조 원을 목표로 지금의 연구

비를 2,000~3,000억 더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등록금 의존 구조를 넘어 정부·기업·지자체·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에 전략 배분하는 것이다. 셋째, 지출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점검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예산 책정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매년 등록금 인상이 예측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등록금 협상은 갈등 반복 우려가 크다. 인상을 산출의 객관적 근거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학생 사회 간 비용 분담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매년 시기에 쫓기는 반복적인 협상과 갈등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등록금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과 집행내역,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분명하게 공개하겠다. 재원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면에 계속 →

인터뷰- 취임 3년 맞은 김진상 총장

2면에서 계속 →

NCSI 만족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책은 많은데 체감이 적다'고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성원의 체감 만족도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결과에 대해 겸허히 인지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최상위 결과를 받아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높았는데 2020년 이후론 접수가 떨어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NCSI 평가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 혁신과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입학 때보다 졸업 때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총장의 역할은 '과연 지금의 기업과 직업군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까'를 고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구성원의 체감 만족도 회복을 위해선 만족도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기별 조사를 통해 점검할 것이다. 또한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학생 및 구성원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우겠다. 결국 만족도는 정책의 양이 아닌 '내 대학생활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는 유학생이 많은 대학이었는데 최근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유학생 감소 원인은 학생 선발 시



김 총장은 "그동안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 혁신, 연구 혁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탑 티어 대학으로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입학 요건인 토픽 급수를 더 높인 적도 있다.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성취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는 문병원 총장 행정실장의 추가 설명) 코로나 시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유학생 수가 늘었다. 그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학생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우리나라 대학에 데려와서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유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또한 교육과 정착에 더 집중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유학생을 지원하는 별도의 글로벌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남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

인가?

대학은 교육과 연구·봉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것은 교육 혁신이다. 대학은 최종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구도 결국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학 운영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겠다. 동시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 또한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과 융합·국제

화를 본격화하겠다. 아울러 공간, 재정,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미래 대학의 기반도 착실히 완성해가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이 변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시간은 그 기반 위에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다. 구성원들이 동참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안해주면 좋겠다. 분명히 총장이 못 보는 시각이 있을 테니 함께 하면 꿈은 이뤄진다고 확신하고 있다.

카메라로 QR 스캔 → '대학주보' 인스타 팔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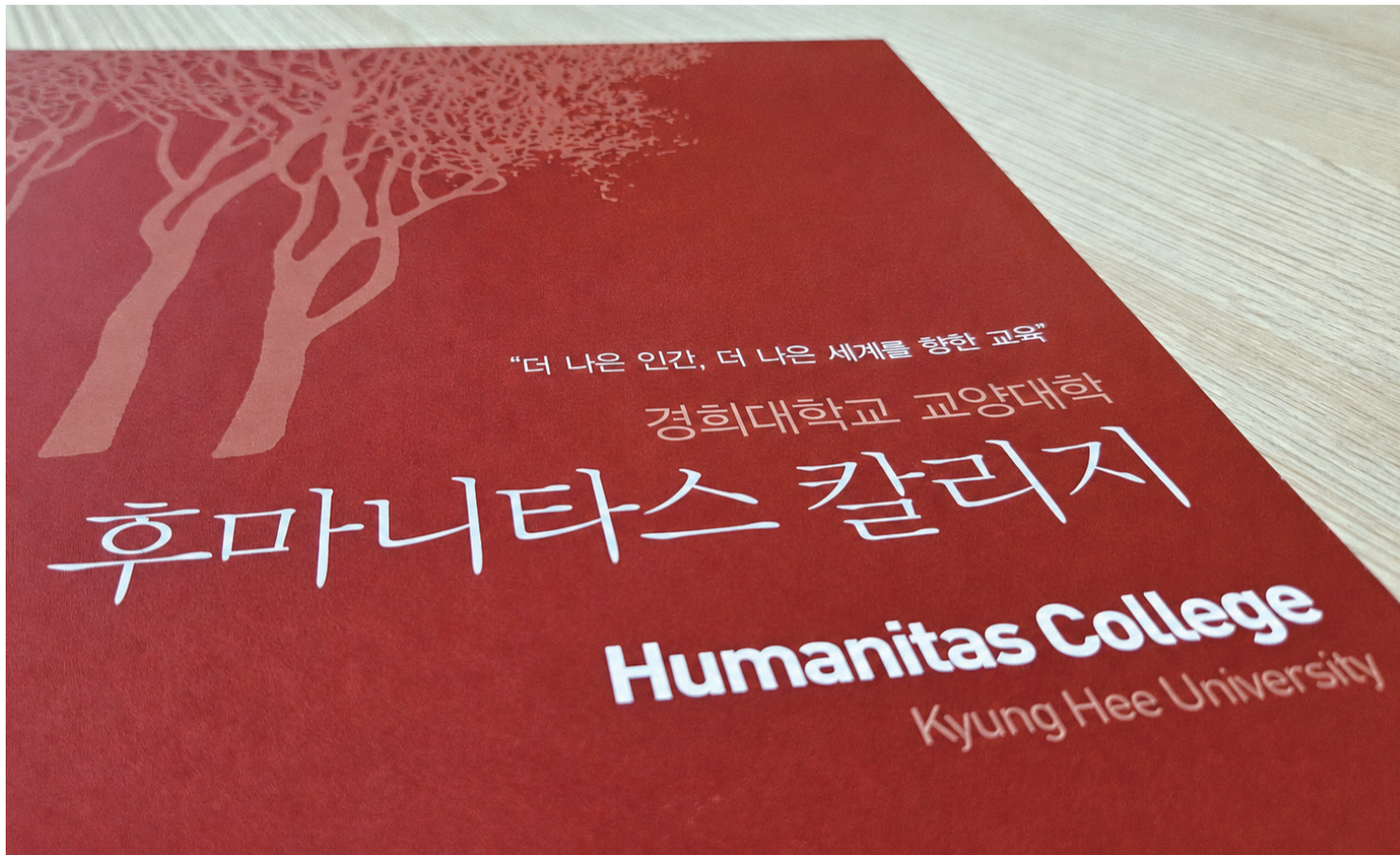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더 많은 콘텐츠는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4 기획



2000년대 후반 우리학교는 교양교육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목표를 되찾아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그 결과물이 후마였다.

(사진=이환희 기자)

후마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 '인간을 기르겠다'던 교육은 어디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④ 위기는 어디에서 오나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4회에서는 자주 거론되는 후마의 정체성 위기를 살펴본다.

2010년 후마의 시작 기계 아닌 인간 길러낸다는 꿈

‘대학은 기계를 길러내지 않고 인간을 길러낸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탁월성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이야기했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시작은 대학의 존재 이유와 기본 책임

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2000년대 후반 우리학교는 대학 교양교육이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성 아래, 교양교육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목표를 되찾아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 결과물이 후마였다. 2007년 후마 준비 위원단이 꾸려졌고 2010년 9월 출범식을 거쳐 2011년 학생들과 처음 만났다.

“경희대학교가 학부 교양교육을 혁신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강화된 교양교육을 전담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1세기 교양교육의 한 전범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5년 전 후마는 완전히 새로운 교양교육의 시작을 선언했다. 21세기 지구공동체의 요청에 응답하는 탁월성의 교육을 실시한다며 학부생 한 사람이 탁월한 개인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대학 문을 나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마 설립 당시 총장이었던 조인원 이사장은 최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마 과정은 ‘쉬운 기본’ 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전공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사유와 인식 능력을 키워 학

문다운 학문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당시 목표 중 하나였던 지구적 실천인 양성에 대해선 “지구촌 곳곳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체험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지향점에 다다르기 위해 후마는 설립 초기, 교육 정체성을 반영한 ‘교과조직의 6대 원칙’을 세웠다.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 ‘학제성의 원칙’, 복잡한 세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가르치는 ‘지구성, 다양성, 복잡성의 원칙’,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자신의 사고를 기르는 ‘지평융합의 원칙’, 역사와 문명을 연대기 순으로만 가르치지 않는 ‘비직선성의 원칙’,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문제탐색의 원칙’, 교과목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는 ‘핵심 공유의 원칙’이 그것이었다.

후마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하라 “예전의 교양으로 돌아갈 수도”

후마 준비위원장과 후마 대학장을 맡았던 도정일(영문학) 교수는 당시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

성원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자부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관련기사: [기자가 만난 사람]룩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준비위원회 도정일 위원장/대학주보 1464호/2010.05.17.) 실제로 후마는 구성원의 자부심이 됐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설립 초기엔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들도 후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돌아봤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 역시 실용학문을 중요시하는 대학가에서 홀로 ‘인문학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후마에 대한 우리학교 구성원의 기대는 짧은 관심에 끝날 정도는 아니었다. 임시설명회에서 후마에 대한 문의가 많았을 정도로 후마는 우리학교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신문이 40명 이상의 학부생을 개별 인터뷰했을 때 후마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극히 적었다.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이재성(골프산업학 2023) 씨나 “관심이 없어 몰랐다”는 우수민(사회학 2025) 씨 같은 학생이 더 많았다.

이에 김진상 총장은 2일 우리학교 언론 4사와의 간담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 뿐이지 후마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엔 과연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후마의 본질적인 이슈”라며 “후마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가까워지는 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우려는 뚜렷했다. 서울캠 후마 정복철 학장은 “후마가 초창기의 탄력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후마는 찬란한 태양이 되지는 못했다”고 표현했다. 2017년 국제캠 후마에 합류한 김성(물리학) 교수는 “처음엔 학생 때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이 융합돼 교육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예전에 알던 교양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나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고 말했다.

돌아볼 시간 필요했던 후마 지쳐가는 15년 전 교수진

후마 교수들은 설립 10주년, 15주년에라도 학교와 후마가 함께 지나는 시간을 돌아보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했다는 데 공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마는 자체 평가의 시간을 가져왔다.

2012년 7월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 토론회’가 열렸고, 2014년 12월엔 ‘후마니타스칼리지 4년 평가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선 후마의 4년을 돌아보며 이론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또한 후마의 지향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왜 대학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고봉준(국어국문학) 교수는 현재도 서울캠에서 인간의가치탐색을 가르치고 있다. “후마의 교육철학이 여러 풍파를 겪으며 모호해지거나 왜소해진 것은 맞다”는 고 교수는 “후마의 시작에서 15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상황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엔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후마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후마 설립 초기의 관심을 기억하는 김 부학장 역시 “우리가 교양교육의 모델이자 모범을 보여줬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글쓰기 중핵교과를 가르치는 고인환(국어국문학) 교수는 “15년 전 채용했던 교수진이 거의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이 부족하고 교수 총원이 되지 않으니 기존 교수진이 지쳐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등록금 협상 갈등, 합리적인 논의 절차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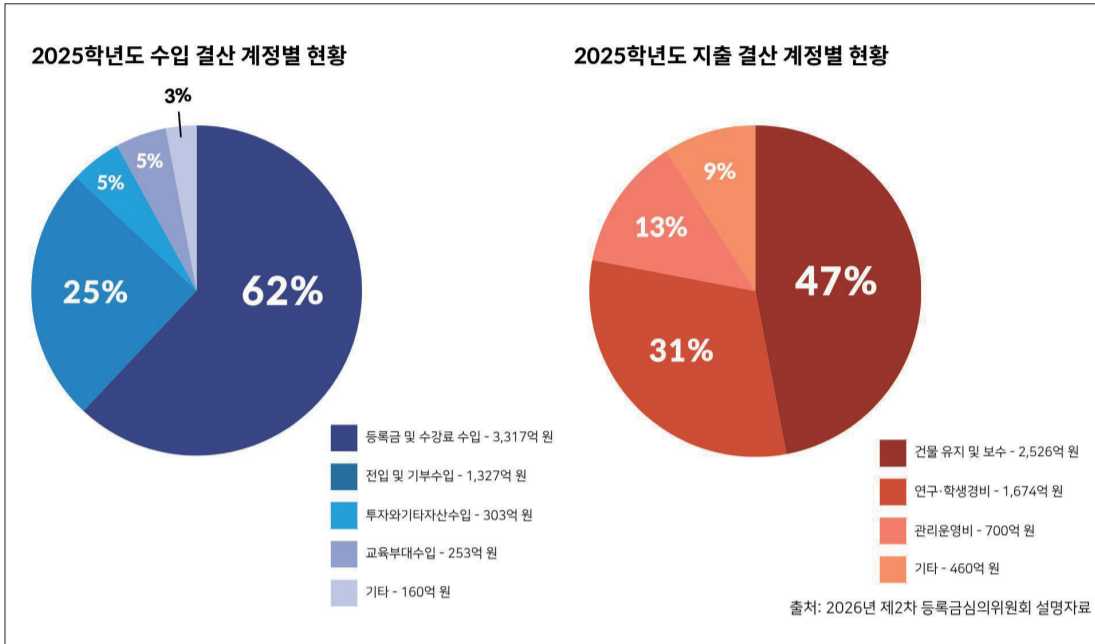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우리학교가 16년의 등록금 동결을 깨고 지난해 5.1% 인상에 이어 올해도 2.95% 인상을 하며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매년 등록금 책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교육부의 법정 상한선에 기댄 인상이 아닌, 객관적인 '인상률 산출 공식'과 '학기 중 회의 정례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우리신문은 2년간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타개할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등록금 논의 방식 학생 불만 '상시화·정례화'로 제질 개선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학생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생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금 논의가 진행돼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캠 신장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학교와 곧바로 등록금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구조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김대원(정치외교학 2025) 위원 역시 "학생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12월부터 1, 2개월 동안 재정운용 간담회가 몰아친다"며 "인상률을 산정하는 초기 과정부터 학생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 회장은 오는 7월 등록금 협상 대응 TF팀을 발족해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대 학생회가 준비한 요구안과



연구 결과를 공백 없이 인수인계해 학교의 재정 구조를 연구하고 협상 카드를 미리 만들어두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무부총장과의 정기 협의체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 회장은 "7월 중 학무부총장 정기협의체에서 단위별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중 재정운용설명회를 개최해 요구안이 10월 추가경정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11월에는 최종 집행 결과를 보고받는 전체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상분 쓰임새에 대한 학교와 학생간 인식 차이

학교와 학생 간 가장 큰 인식 차이는 '등록금 인상분의 쓰임새'에서 발생한다. 예산팀에 따르면 2025학년도엔 장학금과 학생지원비(50억

원), 교육 시설투자(73억 원)에 등록금 인상분 1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쓰였다. 서울캠 학생회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국제캠 사색의 광장 바닥 석재 및 타일 노후화 보수공사, 양캠 중앙도서관 리뉴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다. 지난 1월 양캠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매우 반대'(76.2%)와 '반대'(14.3%)를 합친 부정 여론이 90.5%에 달했다. '인상 전과 비교해 교내 시설, 복지 등 대학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불만족 응답이 65.6%(매우 불만족 42.0%, 불만족 23.6%)로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 예산팀장은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학교

건물 내부에 유지·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쌓여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조금 더 신뢰하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60%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대학과 학생의 '합리적 부담' 비율은

결국 대학 재정 확충에 있어 '학생의 부담'과 '대학의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현재 우리학교 전체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2024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대학 189곳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48%다. 신 회장은 "등록금 수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유치 등 대학 본

부 차원의 수입원 다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캠 정재우 총학생회장(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역시 "학생이 인상분을 부담하는 만큼, 대학도 등록금 외 수입원을 확대해 재정 책임을 절반에 가깝게 나눠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대학 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높여 학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모적 갈등 종식 위한 대원칙 수립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될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9월 예정된 총장과의 대화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 대원칙 수립'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학생회 측은 이 원칙을 통해 등록금 인상이 학교 측의 일방 통보나 임의결정 결정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오는 9월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교 간 대원칙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학생 주권을 지키는 선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향후 인상 논의의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성문화하거나 기계적인 수식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예산팀장은 "대학 예산 편성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학이 접한 대원칙 구상은 구체적인 행정 지시라기보다는 2년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던진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26 Summer Program

From Seoul to the World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26. 06. 30.(화) ~ 07. 20.(월)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3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방법: 2026. 06. 12.(금) 까지 GC 홈페이지 내 신청
- 장학금: 조교장학: 강의료 100% 감면 (강의 당 1명씩 모집)
경희대 동문자녀장학: 강의료 30% 감면
경희대 교직원자녀장학: 강의료 50% 감면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6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수강신청 바로가기

6 기획

‘대동(大同)’ 사라진 대학 축제... 학술·공동체는 옛말 축제 예산은 커지고, ‘라인업’은 곧 학교 수준



①우리학교의 '제1회 대동제'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열렸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②성균관대 오제연(국사학) 교수는 “학과와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들이 실제로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축제가 다시 학생들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대동제는 ‘함께 크게 어울린다’는 대동(大同)의 정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대동제는 연예인 섭외 경쟁과 역대 예산 지출의 장으로 변하며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6개 학보(고대신문, 광운대신문, 대학주보, 성대신문, 한대신문, 한성대신문) 공동취재단과 대학 축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고, 향후 대학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매년 증가하는 축제 예산 연예인 섭외비가 대부분

최근 3년간 대학 축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축제 예산은 학교가 지원하는 교비와 자치회비, 기업 협찬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축제 용역업체(대행사) 입찰 공고에 따르면 교비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제캠 대동제 입찰금액은 ▲2024학년도 봄 1억 3,000만 원 ▲2024학년도 가을 1억 4,000만 원 ▲2025학년도 봄 1억 7,000만 원 ▲2025학년도 가을 2억 ▲2026학년도 봄 2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캠 역시 ▲2023학년도 가을 1억 5,000만 원 ▲2024학년도 봄 1억 5,000만 원 ▲2024학년도 가을 1억 2,000만 원 ▲2025학년도 봄 1억 5,000만 원 ▲2025학년도 가을 1억 5,000만 원 ▲2026학년도 가을 1억 5,000만 원

도 봄 2억 2,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치회비 투입 규모도 커졌다. 서울캠의 경우 올해 봄 대동제에 투입된 총학생회비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지난해 봄 대동제 집행액보다 400만 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학교 1995학번이자 교직원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 몸담아온 자율전공학부 이진섭 행정실장은 “2016~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축제 예산은 7,000만 원 이내였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인상 폭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예인 섭외비가 꼽힌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구영준 차장은 “무대나 안전관리 비용은 매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예산 인상에는 총학생회의 축제 규모 확대 의사나 연예인 섭외 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 역시 “총 축제 비용에서 연예인 섭외비가 약 2/3 정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구체적인 축제 예산 구조나 내역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이 수도권 대학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학교 학생 42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학 중인 대학의 축제 총예산 규모를 아는가’ 문항에 응답자의 59.5%(25명)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규모 정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3%(14명) 정도였다. 강아람(미디어학 2025) 씨는 “축제 예산이 그 정도 규모인지 몰랐다”라며 “최근 인터넷에서 타 대학교의 연예인 섭

외 비용 관련 내용을 보고 축제 비용 규모가 크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주인공’에서 ‘수동적 관객’으로 달라진 축제의 풍경

1956년 우리학교의 ‘제1회 대동제’는 오늘날 축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연주회로 포문을 열어 교직원·학생·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운동회로 이어졌으며, 법학대학 학생들은 모의 재판을, 국문학회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초기 대학 축제는 체육·학술·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지금의 축제와 차이를 보였다.

1970년대 들어 유명 가수를 초청하기도 하며 공연과 이벤트 등 문화활동 위주의 봄 축제와 체육대회 중심 가을 축제로 이원화됐지만,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흐름 속에서 다시 마당극·탈춤놀이·풍물패 공연·통일가요제 등 학생 주도 문화가 축제의 중심을 이뤘다. 이 행정실장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축제는 학생 동아리 무대가 중심이었고 가수는 축하 무대로 한 명 정도 방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연예인 라인업이 대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정회장은 “축제를 즐기지 않는 학생들이 비싼 연예인 섭외에 등록금이 쓰이는 것을 비판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연예인 섭외로 축제가 풍성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측면도 있

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점차 학생 참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역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제캠 총학생회가 기획한 학생 경연 프로그램 ‘경희 갓 텔런트’는 전체 지원자가 3명에 그쳐 행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신라대 양승훈(관광학) 교수는 “학생 개인화로 인한 참여 약화와 대중문화 소비 확산 속에서 축제가 연예인 공연 중심으로 변화했다”며 “학생들이 축제를 직접 만드는 주제보다 소비하는 관객으로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김창수(관광경영학) 교수 역시 “축제가 학생들의 자치 문화나 공동체 활동보다 유명 가수 라인업 중심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공연 섭외에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학생 참여형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동제 의미 되살리려면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대동제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면 축제의 주인은 학생이지만, 현재는 연예인 중심으로 축제의 성과가 평가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수요 역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봄 대동제에서 수렴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와 축제 만족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서진(체육학 2025) 씨는 “연예인 공연 전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들의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학생들의 공연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연예인 위주의 축제보다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대동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규(컴퓨터공학 2025) 씨는 “축제 기간엔 주로 연예인 공연보다 부스에 참여했었다”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부스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대학 축제에 활력이 들고 학생들의 기획과 참여까지 이끌 수 있는 선순환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오제연(국사학) 교수는 “오늘날 대학생들은 1980년대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대동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학과와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들이 실제로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축제가 다시 학생들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문화와 소비문화가 축제의 일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공연 중심의 획일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대학과 학생사회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대학 축제는 어떤 연예인을 섭외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화를 함께 만들고 경험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표심 잡은 공약, 이제는 이행으로 답해야

청년주택 7만 4천 가구 공급에서 반도체 대학원 설립까지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 표심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각 후보들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청년 주거, AI·첨단인재 양성, 교통·안전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신문은 우리학교가 위치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세훈 당선인과 추미애 당선인의 주요 청년정책을 살펴봤다.

청년 주거 안정, 주택공급이 해결할까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월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청년 주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만 가구는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이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55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대학원 스마트부동산학과 구한민(도시공학) 교수는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대시장 위축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청년들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확대가 곧바로 청년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대학교 권대중(경제부동산학) 석좌교수는 "대규모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임대시장의 순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전세 매물 활성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월세에서 전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 표심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사진=박류빈 기자)

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공공주택 공급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 매물 위축이 지속된다면 높은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오 당선인과 추 당선인은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전세사기 위험도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AI·첨단인재 양성, 취업난 해결 목표

청년 주거와 함께 주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청년 일자리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 취업난의 해법으로 AI와 첨단인재 양성이 강조

됐다. 오 당선인은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강화 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의 경우 뷰티·패션 산업과 결합한 AI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측은 "코딩 중심의 교육이 아닌 비주얼마케팅과 커머셜마케팅 분야의 AI 실무 역량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 교육이 실제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동현(신소재공학 2021) 씨는 "기업 공고를 보면 대학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 AI 교육이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취업

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대학원 설립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양한 청년정책, 공약 이행이 관건

이번 선거에서 청년정책은 주거와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통, 안전, 돌봄 등 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통학과 아르바이트로 이동이 잦은 청년층을 위한 교통정책이 강조됐다.

오 당선인은 월정액제 교통 이용권인 '서울동행기후패스'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제도인 월정액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던 수도권 지역인 GTX-A구간과 신분당선이 추가된 제도다. 추 당선인 역시 지역별로 혜택이 달랐던 경기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인천 I-패스를 통합하는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제시됐다. 추 당선인은 청년들의 늦은 귀갓길을 모니터링하는 'AI 안심귀가·돌봄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취생과 기숙사생, 늦은 시간까지 학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귀갓길 안전은 중요한 생활 문제다. 이미 서울시는 안심귀가 앱을 운영하며 사용자에게 안심경로와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지역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존 지도, '거지맵'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대학생들의 한 끼 식사도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거지맵'이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신문은 거지맵에 등록된 학교 인근 식당들을 찾아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생활과 지역 상권의 변화를 살펴봤다.

계속되는 식비 상승 학생들의 선택 '거지맵'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12시, 서울캠 중문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 '따뜻한 밥상'에 도착하니 창문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김치찌개 3,000원'. 대학가 주변 식당들의 메뉴 가격이 1만 원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3,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이 눈길을 끌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다. 혼자 식사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던 박호연(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씨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3,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부담이 없어 자주 방문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이처럼 저렴한 가격의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지맵'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다. 거지맵은 1만 원 이하 식당의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5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수는 5만 회를 넘어섰다. '따뜻한 밥상' 역시 거지맵에 등록된 식당이다.

거지맵을 직접 실행해보니 서울캠 인근에는 23곳, 국제캠 일대에는 3곳의 식당이 등록되어 있었다. 지도에는 식당별 가격대와 대표 메뉴가 표시돼 있으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음식의 양과 맛, 혼밥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식당에는 "학생



들이 부담 없이 먹기 좋다", "가격 대비 양이 많다" 등 후기가 게시돼 있었다.

맛집보다 밥집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한 끼

이같은 저렴한 가격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따뜻한 밥상'의 심성훈 사장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부담 없는 한 끼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김치찌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행사의 시작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상임(철학) 교수와의 우연한 인연이었다. 식당을 찾았던 이 교수가 운영 취지에 공감해 심 사장에게 강연을 요청했고, 이후 식당 이야기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해당 수업을 수강하던 한 학생이 식당을 자주 찾게 됐다. 지방에서 상경해 홀로 생활하던 학생이었다.

심 사장은 "이 교수님께 그 학생이 매일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5만 원을 건네시며 그 학생의 식사비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셨다"며 "그 사연을 SNS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후원해주시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후원금이 무료 식사 행사에 쓰이게 된 것이다.

심 사장은 "학생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밥집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특별한 음식을 파는 곳이라기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



① 5일 기준 거지맵에는 서울캠 인근 23곳, 국제캠 일대 3곳의 식당이 등록돼 있다. (사진=거지맵 화면 캡처)
 ② '중식당 배유'의 배준우 사장은 "가게 문을 닫는 날까지 짜장면 가격 5,000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도은오 기자)

라고 덧붙였다.

거지맵에 등록된 국제캠 주변 서천동에 위치한 식당 '중식당 배유' 역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을 조정했다. 배준우 사장은 2024년부터 현재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개업 초기에는 기대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이유를 고민하던 배 사장은 한 학생 손님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고, 가격이 다소 부담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학생의 한마디는 과감히 가격을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배 사장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바뀌어가는 생각이었다"며 "이후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식당을 찾은 안종현(전자공학과 2025) 씨는 "여기는 학생들 사이에

서 가성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라며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맛도 좋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살리고 청년 연대 강화 '거지맵'의 선순환

전문가들은 거지맵이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사회학과 조광덕(사회학) 교수는 "공적 복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비공식적 사회안전망"이라며 "상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생들은 정보 공유와 단골 형성으로 화답하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거지맵 확산 이후 사장들 역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체감하고 있다. 배 사장은 "한 달 전 거지맵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뒤돌아보니 거지맵이 유명세를 얻은 시점부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심 사장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번 학기에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거지맵의 등장을 청년 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실천으로도 해석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청년 세대가 구조적 경제난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가성비가 단순한 절약을 넘어 '힘함'과 '진정성'이라는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6학번 의무화된 다전공 이수, 졸업까지 하나는 필수 다전공 · 부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차이 살펴보기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을 위해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학사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다전공 의무화'로만 인식해 실제 개편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도 적지 않다. 이에 우리신문은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와 융합전공 등 다양한 전공 이수제도를 살펴본다.

'학위 인정'되는 다전공 심사 조건은 학과별로 상이

다전공은 입학 시 선택한 전공(제1전공) 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시 제1전공과 다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한다. 다전공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입생 기준 2학기 이상, 편입생은 1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며 신청 당시 재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8학기를 넘어 재학 중인 일반 학부생 등)는 신청할 수 없다.

다전공 과정의 이수를 돕기 위해 각 전공별로 전공 이수학점 수를 최소화한 다전공과정 이수학점이 지정돼 있다. 다전공과정 이수자는 제1전공에서 지정한 다전공과정 이수학점(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학생은 다전공 신청 기간에 희망학과에 지원한 뒤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발된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해당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학점, 공인영어점수, 선수강 과목 등 요구하는 승인 심사 기준이 각 학과별로

다전공

학위: ● 2개 취득
이수 기준 학점: 39~51학점, 전공별 상이
이수 방식: 전공 과정 전체 이수
조건: 2학기 이상 재학 + 학과별 심사

융합전공

학위: ● 융합전공 표기
이수 기준 학점: 전공별 상이
이수 방식: 융합 커리큘럼 이수
조건: 다전공 형태 / 일부 1전공 선택가능

부전공

학위: ✖ (이수 표기)
이수 기준 학점: 21학점
이수 방식: 일부 교과목 이수
조건: 졸업 전 신청

마이크로디그리

학위: ✖ (이수 인증)
이수 기준 학점: 9~12학점
이수 방식: 지정 과목 3~4개 이수
조건: 별도 선발 없음 / 과정보다 신청

다르므로 다전공 이수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희망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기준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다전공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엔 각 학과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만 다전공생을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다전공 선발 가능 인원을 최대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최소 선발 인원 기준도 새로이 설정됐다. 다전공을 받는 학과는 다전공 신청 인원의 70%, 입학정원의 30% 중 인원이 더 적은 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준 인원 이상을 다전공생으로 선발한다.

학위 대신 '이수 사실' 표기 통상 21학점 요구하는 부전공

부전공은 재학 중 전공에서 지정한 부전공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는 학사제도다. 다전공과 달리 별도의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지

만, 이수 사실이 학위증과 각종 증명서에 표기된다. 부전공은 통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별 세부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전공은 다전공 이수가 가능한 전공에 한해 이수가 가능하다. 일부 전공은 다전공 이수가 가능함에도 별도로 부전공 이수는 금지하고 있다.

부전공과정 이수 심사는 졸업예정학기 별도의 공고기간 중 인포21을 통하여 신청한다. 다전공보다 요구 학점이 적고, 심사기준도 간단하여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가 학위를 취득하기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진로와 연계된 역량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두 개 이상의 학과가 협력해 만든 융합전공

융합전공은 기존 모집단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두 개 이상의 학과

가 협력해 만든 새로운 전공이다. 학과 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켜 전공 편제 개편 없이 두 전공이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한 형태다. 융합전공 이수자들은 기존 학과의 전공이 아닌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현재 양캠 합쳐 43개의 학과(학부)가 23개의 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했다. 융합전공은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융합전공은 다전공 형태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부 전공은 제1전공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는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2학기 이상 등록,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제1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참여 학과 소속 학생이 2학기 이상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융합전공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은 각 전공이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 시 학위증에 융합전공

명이 별도로 기재된다. 융합전공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 지식을 함께 습득할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9~12학점 내외 이수 집중 학습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는 과정보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9~12학점 내외를 이수하여 특정 분야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소규모 교육과정이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 학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수내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마이크로디그리는 각 학과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들을 특정 직무에 맞게 3~4개씩 재조합한 것이나, 후마니타스칼리지(교양대학)나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위해 새로 개발된 전용 과목('Chat GPT를 활용한 생성형 AI', '인공지능과 라이프 3.0' 등)도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다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어 관심 분야를 부담 없이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다전공 의무화' 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변화의 일환이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의 학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 이수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년 대비 224% 증가

유혹의 손길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교정 가득 메운 인다, 2026 MASTERPEACE, 마지막 밤

유혹의 손길

인공 지능 학생회장

학생회비 700원 기부 사회봉사

투표소에서 만난 청년 유권자

하나씩 착한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팔로우 하시고 학내외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만나보세요

10 종합

핸드볼부, H1 디비전리그 우승

올해 전 경기 무패 '폭풍 질주'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핸드볼부가 '2026 H1 핸드볼 디비전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핸드볼부는 지난 5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충남대와의 리그 최종전에서 34-31로 승리하며 대회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대학부 A조에 속한 핸드볼부는 1일 조선대를 36-28로 꺾은 데 이어 2일 강원대를 31-23으로 제압했다. 4일 원광대를 상대로 29-27의 접전 끝에 승리했고, 5일 충남대마저 34-31로 꺾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충남대와의 최종전은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전반전을 17-17 동점으로 마친 핸드볼부는 후반 시작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정진욱(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9m 슛 득점으로 기선제압했다. 이어 전반 초반 교체 투입된 권오준(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연속 선방을 기록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

했다. 이후 양 팀이 치열한 득점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김은호(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와 강준원(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연속 득점이 터지며 점수 차는 31-26까지 벌어졌다. 충남대도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다. 권 선수의 결정적인 선방이 이어지며 경기는 34-31 핸드볼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경기에 대해 강 선수는 "선수들 모두가 준비한 전술을 경기장에서 잘 수행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 중 선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결과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신입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신입생 권 선수가 골키퍼로서 10세이브를 기록했고, 라이트윙 김 선수는 10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 선수는 "초반에는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긴장도 많이 됐다"며

"팀원들이 벤치에서 끊임없이 격려해 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년 강 선수는 "신입생들의 합류 덕분에 팀 내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경쟁 분위기가 활성화됐다"며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세와 에너지가 팀 전체 분위기와 사기 증진에 도움을 줘 더욱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핸드볼부는 지난 3월 열린 제81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도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디비전 리그 우승 역시 전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디비전 리그를 돌아보며 강 선수는 "이번 리그를 준비하며 경기 후반에도 높은 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향상과 수비 조직력 강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다양한 실전 상황을 가정한 전술 훈련과 연습경기를 반복



올해 '전 경기 무패'를 목표로 하는 핸드볼부는 지난 대회에 이어 '2026 H1 디비전리그'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핸드볼부 프런트 제공)

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저학년 선수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지만, 우리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훈련할 수 있었던 점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꿈꾸며

경희기록관 이금하

경희의유산 ⑥ 「건강의 여신상」

6월 12일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동서신의학병원'으로 문을 열어, 2010년 11월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991년 4월 건설의 첫 삽을 떴지만, 설립 과정에 수많은 고난에 직면해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1997년 우리나라를 덮친 외환 위기와 그로 인한 IMF 구제금융 상황이었다. 건물 골조 공사만 마친 상태로 수년간 고덕동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던 병원은 2004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후속 공사가 재개됐고, 2006년 6월 마침내 개원의 날을 맞이했다. 경희의료원은 강동병원보다 35년 앞선 1971년 10월 문을 열었다. 두 의료기관은 공통된 목표가 있다. 바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구현

하는 것이다. 그 꿈을 상징하는 것이 의료원 정문 앞 잔디광장에 서 있는 '건강의 여신상'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건강, 위생, 예방'을 상징하는 여신 '히게이아(Hygieia)'를 형상화했는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홀에 있는 분수대 조각상을 제작한 석주(石洲) 윤영자 선생의 작품이다. 히게이아가 '위생(hygiene)'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히게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의 딸이다. 아버지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중심이라면, 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히게이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의료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한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경희 의료가 지향하는 '질병 없는 인류 사회'의 모습이 라면, '건강의 여신상'은 그 꿈을 향한 경희 의료인의 의지와 도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립자 조영식 박사로부터 새로 지을 병원의 조각상 제작을 의뢰받고, 작가가 이미지 구상에 실제 참고한 대상은 정작 히게이아가 아니었다고 한다. 모델이 된 것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조각한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조각상 '사모트라케의 니케'였다. 바람에 날려 다리에 휘감긴 치맛자락이나 섬세한 두 날개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니케 여신상이 연상되기도 한다. 의료원이 개원하기 3년 전인 1968년 완성된 이 조각상은 처음에는 병원 입구에 마련된 경비실 건물 위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잔디광장을 재정비하면서 경비실이 철거되고, 건강의 여신상도 지금의 위치에 이전 설치됐다.



1971년 경희의료원 개원 당시 '건강의 여신상'의 모습. '니케의 여신상'을 모델로 했다.

사설

다전공 의무화, 선언보다 준비가 먼저

202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다전공·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교는 이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설명한다.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의 정도다.

한 학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러한 준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학교는 다전공 의무이수제의 큰 틀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완료했지만, 실제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과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

다전공 의무이수제는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졸업 요건을 바꾸는 사안이다.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 선포부터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학과에서는 선수강 과목을 이수해야만 다전공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입학과 동시에 학과를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학생은 이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학과마다 상이한 선수과목 기준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는 통합된 기준과 안내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는 이러한 지적에 "제도를 도입한 뒤 문제를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예상되는 수요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신설될 '미래교육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이수 체계와 안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지난 3월 출범할 계획이었던 미래교육처는 현재까지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제도를 총괄할 조직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자율·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에서 나타났던 특정학과 쏠림 현상(서울캠 경영대학, 국제캠 전자정보대학)이 다전공 선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수요 예측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학교는 준비 미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2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고 신입생 대상 안내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졸업 요건과 직결되는 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준비는 제도 시행 이후가 아

니라 선포 이전 단계에서 완료됐어야 할 사안이다.

제도는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졸업 요건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은 그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는 이제라도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교육처 신설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논의를 지체 없이 본격화해야 한다.

논의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전공 신청·승인 통합 기준, 학과별 특성 반영 원칙, 다전공생 이수 및 평가 방식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포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제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 또한 대학의 책임이다.

세시봉

우리의 적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6·3 지방선거 중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긴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렸고,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투표가 이어지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된 순간이었다.

선거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정식 투표함이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유권자를 기만한 셈이다.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터무니없는 선관위의 해명이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설명이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기관이 정작 투표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투표용지 수량 확보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선거 중 벌어지는 정쟁과 토론, 때로는 거친 말싸움마저도 결국 민주주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며, 다시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는 이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에 대한 불신과 미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0.1%포인트 오른 고무적인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실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논산시 제1선거구에서는 단 1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민주주의에서 한 표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들은 그 한 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투쟁해왔으며,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는 가장 큰 우리의 적이었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경희의 축제를 위하여

'대동(大同)'을 찾아서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대동제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다 놀란 지점이 있다. 1956년 10월 열린 우리학교 '제1회 대학제'가 전국 대학 최초의 축제이자 현재 대학 축제의 태동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축제는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연주회부터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한 운동회, 법학대학 모의재판, 국문학회 학술발표회 등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대동제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대학의 학술과 문화 역량을 나누는 공동체 장으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축제를 맞은 캠퍼스는 온통 연예인 라인업 이야기를 하기 바쁘다. 단톡방부터 커뮤니티까지 어떤 가수가 오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고간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무대 라인업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다.

온 신경이 외부 연예인에게만 쏠려 있다 보니 정작 우리학교만의 축제 문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연예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 공연이 축제의 큰 재미라는 점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를 즐기는 게 축제의 전부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동제(大同祭)'라는 이름처럼 축제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데 있다.

그렇기에 연예인 이름값이 축제의 전부가 된 현실은 씁쓸하다. 학생이 지워진 캠퍼스는 외부에서 빌려온 화려한 무대를 소비하는 대기실로 전락할 뿐이다.

축제가 연예인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어느 학교에나 있는 흔한 라인업 경쟁만으로는 경희의 축제를 설명할 수 없다.

빌려온 화려함에 머무르기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참여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본래의 의미를 이어갈 때, 70년을 이어온 대동제는 비로소 '우리의 축제'가 된다.



만평 지워진 대동의 의미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사람



박설하 씨는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를 단순히 제작하고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사고 방식과 삶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다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 ‘왜 만들어야 하나’를 고민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⑥
디지털콘텐츠 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게임 창작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개인의 자아효능감, 동기, 창의성 등 다양한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학과 박설하(박사 7기) 씨다.

현실 밖의 또 다른 세계 ‘콘텐츠’로 견뎌낸 시간

어릴 적부터 박설하 씨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만화부 활동을 했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우리학교 디

지탈콘텐츠학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전시·게임·시각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콘텐츠가 작동하는 방식을 배우고 탐구해 나갔다. 좋아하는 일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했고, 그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온 과정이었다.

20여 년 전, 박설하 씨가 살던 집이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 박 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을 만화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에 집중하면서 풀어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와 더욱 밀접해졌다. 현실과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지금의 연구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박사 2기, 작가 박설하로서의 첫 작업이 이뤄졌다. 미디어아트 게임 전시인 <극장의 집> 프로젝트였다. 전시의 주제가 ‘집’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웠다. 전시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꺼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집의 변화와 소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AI를 활용한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콘텐츠도 선보였다. 관람자들은 전시장에서 각자의 기억과 기준에 따라 집을 만들

었다. 하나의 전시 안에서 수많은 집이 동시에 생기게 됐다. 박 씨는 첫 개인전을 두고 “같은 개념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구조와 의미로 구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박설하 씨의 디지털콘텐츠 연구는 특정 대상에게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해야 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고, 반응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 해야 하는가’ 콘텐츠의 목적이 중요



첫 개인전 <극장의 집> 전시물 일부 모습. (사진=박설하 씨 제공)

박설하 씨는 게임 설계 및 제작, 그중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는 ‘시리우스 게임(기능성 게임)’에 전문성이 있다. 특히 교육·의료·공공 분야의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박 씨는 “목적이 있는 콘텐츠는 애초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활 치료 게임을 예로 들면, 아이들이 치료를 해야 하지만 과정이 지루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한다면, 치료 과정이 흥미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을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설계하고 이해하고 싶었다. 예시로 들었던 재활 치료 또한 대학원에서 연구한다면 ‘이 치료에는 이러한 게임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

었다.

논문 주제는 향후 진로와 이어지지만, 박 씨가 선택한 콘텐츠 분야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박 씨는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공헌 관련 콘텐츠에 대한 투자나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를 먹으면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내 길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은 똑같다”고 했다.

기술 구현 쉬워진 현재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설하 씨는 현재 우리학교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에서 ‘뉴미디어 아트’ 과목을 맡아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학부 시절과 비교해 디지털콘텐츠학 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묻자 ‘기술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대학 시절 배운 프로그램 중 절반은 지금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며 “이 전공은 결국 평생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는 특정 기술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씨는 “예전에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쉽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보다 ‘왜 만들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며 박 씨는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제작 과정이 사람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일반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들도 창작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졌다. 박 씨는 “참여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제작 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박사 논문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혔다.

박 씨는 연구를 ‘좌절과 희망이 반복된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박 씨는 “예상한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작은 구조나 표현의 변화만으로도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이 있다”며 “그럴 때 다시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